

윤기동 농협은행 고성군지부장 “농협 발전 위해 최선을”



지난 13일 농협 중앙회 인사에 따라 농협은행 고성군지부장으로 부임한 윤기동 지부장(54세, 사진은 “고향으로 돌아와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농협과 농업인 및 고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윤지부장은 동광중과 동광농고를 졸업하고 1978년 인제군조합을 시작으로 농협에 몸담은 뒤 그동안 중앙회 고성군지부 과장, 강원지역본부 과장 대리, 인천 송도시티지점 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은 부인 이성미씨와 1남1녀. 최광호 기자

고성교육지원청 3월1일자 인사발령

△위생6급 승진 교육지원과 임계순(양구교육지원청) △시설6급 행정지원과 김기래(속초양양교육지원청) △시설7급 행정지원과 최용민(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장열(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9급 교육지원과 최두식(고성도서관) △기능8급 간성초 최복식(교육지원과), 동광중 노현우(간성초) △기능9급 고성도서관 전관수(간성초).

‘행복한 학교 만들기’ 거진중학교 권성준 교장

“거진교육발전위 조직해 인재 유출 막겠다”

“‘best 거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선생님과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진중학교에 권성준 교장(57세, 사진)이 새로 부임했다.

고성군 간성읍이 고향인 권교장은 1978년 9월 전남 영암여고에서 교편을 처음 잡은 후 현재까지 35년째 교직에 몸을 담고 있다.

권 교장은 1980년 동광농고로 발령 받은 후 거진여상, 고성중학교, 고성고, 거진중고, 대진고 등 고성지역에서 20년간 생활하면서 고향 후배들의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푸근하고 넉넉한 인상과 말투를 지니고 있는 권교장은 교직 생활 속에서 때론 자상하면서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때론 엄격한 모습으로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애정과 관심을 쏟아 부으며 참교육을 실천하는 선생님이로 알려졌다.

거진중학교는 2011년 강원행복 플러스 학교로 지정된 이후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아 대부분의 학교가 신입생이 줄어드는 것과는 달리 올해 신입생이 증가해 1개 학급이 늘었다고 한다.

이같은 호응에 힘입어 권교장은 올해부터 교육공동체 대표가 참여하는 거진교육발전위원회를 조직 운영해 유능한 학생들이 타 지역학교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고향 인재 발굴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권교장은 “학교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신뢰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소통하는 것이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진중학교를 즐거운 학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교장은 간성초, 고성중, 강원사대 부설고, 관동대 사범대 등을 졸업했으며, 고려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원광연 기자

“배드민턴 코트 부족 · 천학정 주변 화장실 없어”



주민발언대

간성읍 최태현씨(42세)

저는 간성읍에서 고성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성군 배드민턴연합회 경기 이사를 맡고 있는 최태현(42세, 사진)입니다.

평소 생활하면서 아쉬운 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성군 생활체육관의 배드민턴 코트를 늘려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운동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10년째 배드민턴 고성클럽회원으로 활동하며 매일 저녁마다 회원 40여명과 함께 고성군 생활체육관을 이용해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2개의 코트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 단식경기는 고사하고 복식경기로 운동을 해도 1개 코트에서 4명밖에 이용할 수 없어서 현재 2개 코트에서 8명이 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호회원들 수에 비해서 코트가 부족해 운동량도 부족하고 한참을 기다렸다 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매일저녁 7시부터 9시30분까지 개방되고 있는 고성군 생활체육관은 1층과 2층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층은 4개 코트가 있는데, 배드민턴 동호회가 2개, 탁구동호회가 2개의 코트를 각각 이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당초 불링장으로 설계가 되었고 들었는데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호인들끼리 1층을 코트로 만들어 4개 코트가 늘어나면 배드민턴 및 탁구 동호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고성 8경에 들어가는 천학정 주변에 화장실 건립과 휴지통을 늘렸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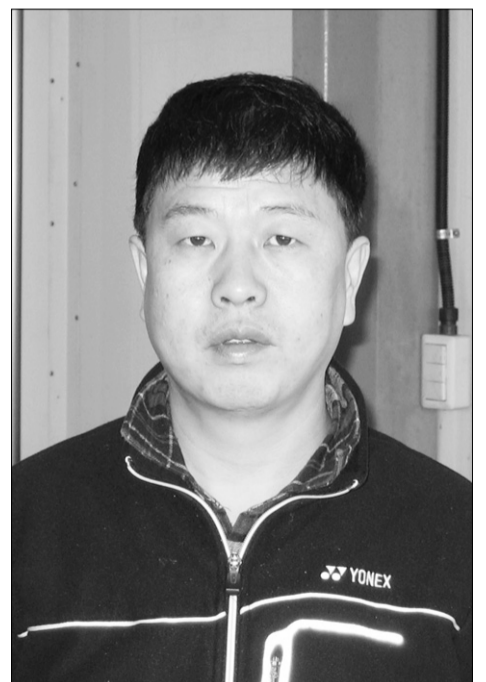
저는 영업을 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가끔 천학정을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며 머리를 식히고 하는데, 천학정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데다 관리 소홀까지 겹쳐 노상방뇨로 인한 악취와 오물쓰레기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들렀더니 한 달 전에 내렸던 눈이 아직 쌓여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관광객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천학정은 토성면 교암리에 있는 정자로 고성8경중 제2경에 들어가며 남쪽으로 청간정과 백도가 바라다보여 사계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고성의 관광코스입니다. 주위에는 1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옛 정취를 느끼게 해주고 아름다운 일출 명소로도 유명하며, 정자로 올라가는 길은 아름다운 글귀로 여행자들의 시선을 끌기도 합니다.

요즘은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고성의 유명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찾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하면 때 묻지 않은 청정미지와 시원한 바다풍경과 산, 호수 등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고성8경에 들어가는 천학정 주변에 화장실조차 없는 현실을 보고 관광객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니 얼굴이 빨개집니다.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조금씩 개선점을 찾아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듭시다.

원광연 기자

본지는 임진년 새해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주민발언대’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당 : 원광연 기자(☎681-1666, 010-5379-0890)